

화순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교육생 모두 '면허취득 성공'

3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 위탁...농업인 69명 수강

3t 미만 굴삭기·지게차·농업용 로더 등 면허 취득

화순군이 운영하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반' 교육생 69명 모두 면허 취득에 성공했다.

화순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5차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해 소형 굴삭기,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에는 69명이 참여했다.

농업용 소형건설기계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

른 일손 부족 해결하는 데안 중 하나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면,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위험성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반 교육을 운영했다.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 기술을 익히고 기계를 조차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

육을 진행했다.

화순군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의 하나로 면허 취득반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굴삭기와 지게차 이외에 축산 농가 등에서 사용되는 농업용 로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순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용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반 교육은 농촌 인력 부족과 경영비 부담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된다"며 "농업용 소형건설기계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해진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MZ세대 공략' 나주시-동신대학교, 관광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축제 홍보대사, 대학 동아리 연계 활동 지원 등 인력지원 이은 관광 활성화 연대 '관·학 협력 인프라' 강화



나주시와 동신대학교가 나주 관광 발전을 목표로 한 관·학 상생 파트너십을 맺었다.

나주시는 23일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와 '관광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MZ' 세대 트렌드를 겨냥한 관광 홍보 및 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광·경제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이뤄졌다.

동신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운병태 시장, 이주희 총장과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나주시 축제 프로그램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활동 지원', '각종 행사 시 나주 관광 및 축제 연계 홍보', '대학 동아리 연계 및 공연활동', '프로그램 운영·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동신대는 오는 10월 8-9일 이를

간 국립나주박물관 일원서 개최하는 2022년 대한민국 마한문화제 홍보대사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축제 대표 행사이자 춤 경연 프로그램인 '댄싱 온 마한'(가칭)에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학생들이 출연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학생들은 앞서 지난 6월 나주시와 협업·제작한 관광홍보영상 '댄스 위드 나주'(DANCE WITH NAJU)로 인연을 맺은바 있다.

운병태 나주시장은 "수확철 농촌 인력지원 협약에 이어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준 동신대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침체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나주의 홍보대사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지역민들께서 동신대학교가 나주에 있어 '참 다행이고 좋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거점대학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사회의 발전 현안과 지역민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봉사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담양군 용면, 제1회 주민총회 성황리 개최

자치계획 수립·지역 현안 해결 방안 논의

담양군 용면은 최근 마을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현안의 해결 방안을 나누기 위한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는 이병노 담양군수,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국승인 담양경찰서장, 박준엽 담양군의회 부의장,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하여 축하하였으며, 그 외 지역사회단체장, 용면 주민 1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축사에서 장준영 회장을 비롯한 주민총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전하며 "지방분권 강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 자율성 보장과 주민자치 운영 구성의 다양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구례군, 자활근로사업 자활급여 3% 인상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근로의욕 고취

구례군은 자활사업의 자활급여 단가를 8월부터 3%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가 인상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의 고용지원 추진 과제 후속조치 방안으로, 소득보장 금액을 확대해 최근 물가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근로유지형과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급여액은 142만 1천 원에서 146만 3천 원으로,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액은 123만 1천 원에서 126만 8천 원으로, 근로유지형은 679천 원에서 699천 원으로 월 3-4만 원 정도의 급여가 인상되었다.

현재 자활사업 위탁기관인 구례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 7개소(Gateway1, 사회서비스형 5, 시장진입형 1)가 운영되고 있으며, 4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례=박진호 기자

장성군 "대형폐기물 배출, 스마트폰 어플로 간편하게"

썬갠다와 협약... 10월부터 온라인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 '빠기' 시행

장성군이 23일 장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썬갠다와 대형폐기물 수거 플랫폼 '빠기'의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썬갠다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대형폐기물 온라인 배출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다. 썬갠다에서 개발한 '빠기'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부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해 준다. 행정안전부가 공식 지정한 대형폐기물 배출 서비스다.

'빠기'가 시행되면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또한 ▲혼자 버리기 어렵거나 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을 운반해 주는 '내려드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자체 매입하는 '중고매입' 서비스도 제공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군민 여러분의 대형폐기물 배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폐기물 재활용을 향상을 통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군은 전산 시스템 구축 등 '빠기' 플랫폼 도입 준비를 마치고, 오는 10월 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장성=김수권 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